

주가	환율	금리
+1.36	-0.70	보합
1,227.19 (코스피지수)	955.80원 (원/달러)	4.94%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566.31	(+1.53)
다우(20일)	10,974.84	(+32.73)
나스닥(20일)	2,107.06	(-3.36)
닛케이	14,644.26	(-4.15)
엔-달러 환율(도쿄 17:00 기준)	114.63엔	(-0.26)
유로 달러 환율	1.2617달러	(+0.33)
3년만기 회사채	5.22%	(보합)
클레리	4.22%	(+0.13)



이명래 광주지방국세청장 명예 퇴임

이명래(57) 광주지방국세청장이 21일 명예퇴임했다. 이 청장은 1979년 국세청(사무관) 공무원으로 시작하여 원주세무서장, 국세청 총무과장과 감사관 등을 맡다 지난해 12월 29일 제 37대 광주청장으로 취임했다. 퇴임 후 이 청장은 세우회가 운영하는 삼화왕관 대표이사직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전남 서남북부권 한우 공동브랜드 추진

전남 동부권에 이어 서남북부권 축협들도 한우 공동브랜드 개발에 나섰다. 전남 서남북부권 축협 관계자와 농협 전남본부 관계자 등 20여명은 21일 담양축협 백동지소에서 서남북부권 축협 공동 한우브랜드 개발을 위한 첫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 목포·담양 등 서남북부권 13개 축협은 '서남북부권 공동한우브랜드' 개발에 참여키로 잠정 합의하고 농협전남 본부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브랜드 개발을 돕기로 했다. 이들은 또 8월 15일까지 참여조합 명단 확정 및 협약체결, 같은 달 31일까지 참여농가 구성 및 브랜드 기초작업 착수 등 관련 세부일정을 마련했다. 김수공 부본부장은 "앞으로 중앙회·행정기관·학계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참여조합의 선정, 사업단 구성 등에 관해 서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광주 생산도시 우리가 이끈다 5

IT·CT로 문화수도 '견인'

〈정보기술〉 〈컴퓨터기술〉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영주·서구 양동 금호생명빌딩)이 올해부터 시작한 전문인력 양성프로젝트의 현장이다. 이와 함께 진흥원은 게임개발 및 서비스과정에도 20여명을 대상으로 게임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2002년 설립된 진흥원이 인력양성 외에 광주영상에센터, 광주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광주영상문화관 등을 가동하며 디지털콘텐츠 생산의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IT(정보기술)·CT(컴퓨터기술)·R&D(연구개발) 분야로 나뉘어 오는 2010년까지 광주를 문화정보산업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단계별 전략을 실행 중이다.

IT분야의 경우 광주IT컴플렉스 조

게임사관학교 운영 등 전문 인력 양성에 온힘

문화정보산업 조직화 앞장...수도권 기업 유치

성사업(2005~2008)이 첫 손가락에 꼽힌다. 45억5천만원이 투입될 이 사업에는 컴퓨터형성가공이미지(CGI) 제작센터가 들어설 DC존, 연구개발(R&D) 클러스터가 입주할 IT존 등이 포함돼 있다.

올 9월에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06광주정보통신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행사에는 전국 60개 업체가 참여해 관련전시회, 대학생졸업작품 페스티벌, U-city 세미나, 국제컨퍼런스 등을 마련한다.

김영주 원장은 "CT사업으로는 지난 달에 개최한 광주게임대회를 시작으로 캐릭터·문화원형개발사업, 문화콘

텐츠 기획·창작 스튜디오, 청소년음악 페스티벌 등을 통해 저변인구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진흥원은 R&D사업으로 ▲소프트웨어 특화육성지원사업 ▲시제품 개발고도화지원사업 ▲디지털문화콘텐츠 제작 및 WAF(웹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제작지원사업 ▲CGI산업 육성기반 구축 등 굵직한 사업을 전개한다.

2002년 이후 4년여 동안 진흥원이 거둔 성과도 괄목할 만하다.

데커(애니메이션)·비전마스터(영상제작) 등 11개의 수도권 기업을 유치했다는 가 하면 에듀위즈 등 20개 업체,



남구 사동에 위치한 멀티미디어 교육실에서 교육생들이 동영상 제작실습을 하고 있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17건에 22억5천만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또 정부의 공모사업에 응모, 20건 128억6천만원 규모의 주관사업을 끌어왔고 프랑스·미국 등 36개 국내의 기관·업체들과 다양한 사업협력 체제를 구축해왔다.

김 원장은 "아직 IT·CT분야의 기반이 미흡한 상태지만, 체계적인 프로젝

트를 통해 다양한 사업·기업을 유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경우 조만간 수도권 수준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인도·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과의 교류에도 관심을 기울여 IT·CT산업을 광주발전의 신성장동력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소비자들 양배추·수박 등 식재료 실속구매

백화점 '조각·묶음 상품' 인기

식품 판매방식에도 판매량 단위에 따라 '극소와 극대'가 인기를 끄는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20일 광주지역 유통업체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실속구매 경향의 확산으로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는 '조각 상품'과 대량으로 묶어서 판매하는 '묶음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음식물이 상

하기 쉬운 여름철을 맞아 호박이나 양배추, 수박 등 청과류를 조각상품으로 판매해 10%이상의 매출증대 효과를 누리고 있다.

또 미니토마토와 사과, 배 등 과일류를 박스포장대신 소포장으로 판매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이와함께 과자와 우유, 요쿠르트 등 3~5일동안에 소비

가능한 개별상품을 모아 묶음으로 판매하는 묶음상품도 선보여 소비자들로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신세계도 지하1층 식품관에서 양배추, 수박, 멜론, 파인애플을 통단 위보다는 2분의1이나 4분의1로 쪼개 개별 포장해 판매하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수박의 경우 전체 매출의 10~15%가 조각 판매에 의해 이뤄지고 있을 정도로 매출 기여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김영희 식품팀장은 "식품별 소비특성을 감안해 조각과 묶음상품으로 판매방식을 양극화 했다"고 말했다.

/정말수기자 bungy@kwangju.co.kr

기아차 "생산직 채용 공정성 문제 없다"

기아자동차는 최근 광주공장의 생산직 채용과 관련,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투명성과 공정성 우려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21일 밝혔다.

기아차는 이번 채용과정은 과거의 채용방식에서 완전 탈피해 본사 채용전문팀이 전 과정을 직접 주관하고 있고, 채

용 후 감사 및 재심을 통해 부정의 소지를 철저히 제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지난해 채용비리에서 부각됐던 사내추천인사를 지원서 자체에서 삭제했고, 적성검사와 필기시험 제도를 도입해 채용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채용 시스템을 대폭 개

선했다. 이와 함께 기아차는 인터넷 공고를 이용할 경우 지역민의 채용기회가 줄어들고 전국에서 지원자가 몰려 업무가 마비될 것으로 판단, 원시배부 방식을 택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아차 광주공장의 카렌스 생산라인에 투입될 생산직 사원 채용과 관련, 지난 15일 오전까지 마감한 지원서를 집계한 결과 1만2천여명이 지원, 130 :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중소 해외시장 개척요원 모집합니다

중기청 30일까지 접수

광주·전남중소기업청(청장 장순호)은 오는 30일까지 우수한 국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 해외시장조사, 바이어발굴 및 상담 등 해외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해외시장개척요원을 모집한다.

선정된 해외시장개척요원에게는 국내교육비, 항공료 및 여행자 보험료, 현지 체제비(60~100%)를 지원하며, 인턴사원에 한해 성과 인센티브도 적용한다. 국내교육은 7월31일부터 9월15일까지 실시되며, 오는 9

월 중 6개월간 희망국에 파견된다.

지원자격은 자질이 우수한 중소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자(인턴사원)로 근로자의 경우 45세, 인턴사원의 경우 대학 재학생과 해외시장개척요원으로 1회 이상 파견자는 제외되며, 올해 8월 졸업예정자는 지원 가능하다.

신청 및 접수는 해외시장 개척요원 홈페이지(http://pioneer.smba.go.kr)에서 온라인상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전남대 '포토닉' 등 50개팀

창업동아리 지원 대상 선정

광주·전남지역 대학 4개팀을 포함한 전국 50개팀이 중소기업청 '우수창업동아리' 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됐다고 21일 중기청이 발표했다.

광주·전남지역은 전남대 '포토닉' 케미스트론의 '포토닉 크리스탈을 이용한 VCSEL 타입 레이저 다이오드', 전남대 여수캠퍼스 '라온샵 커뮤니케이션'의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미디어 Sognostock.com', 조선대 '시나브로'의 'VDT중추군 방지 인체공학 마우스', 남도대학 '씨에이디'의 '건축자료 제공 및 건축컴퓨터그래픽 소프트웨어 운영' 등이다. /이종태기자 jilee@

2006 한글축구 파이링! (한글축구 파이링!)

공망은 또 이루어진다

대한민국 16강 진출을 기원합니다

동양나이트 임직원일동